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14~7/2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조선이여 법의 등불을 밝혀라	원행 스님	불교신문사	6	현실은 영원이다	지광	위로
2	요가디피카	현천 스님	선요가	7	부처님 건강법	현담 스님	선
3	지옥에서 연꽃을 피운 수도자 아내의 수기	변영희	바른법연구원	8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구슬	김성철	오타쿠
4	티벳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합본)	초펠	하늘호수	9	진리와 자유의 길	법정 스님	지식을 만드는 지식
5	술술 읽으며 깨쳐가는 금강경	하도겸/정호선 외	운주사	10	모든 발걸음마다 평화	틱낫한	불광

책세상

인터넷시대, 더 어두워진 業의 굴레



인터넷 카르마
사사키 시즈카 지음
법장 옮김
모과나무 펴냄
1만6천원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1세기 인간은 더 이상 '인터넷' 이란 공간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됐다. 앉은 자리서 클릭과 손가락 터치 몇 번이면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으며, 자신과 같은 관심사를 가진 전 세계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다.

이 같은 편리성 이면에는 어두운 면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SNS와 관련한 확증편향 문제다. 이것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한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일컫는 심리학 용어이다. SNS 시대에는 이 같은 확증편향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SNS를 다른 사람과 집단과의 소통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수단으로 활용돼 벌어진 일이다.

최근 한강변서 음주 후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대학생 사건에 대해 경찰 재조사를 촉구하는 시민들 입에서 나온 "우린 유튜브만 믿어! 유튜브가 진실이야"라는 말은 확증편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문제는 이 같은 집단적 확증편향은 불필요한 사회 갈등부터 스스로 인터넷 자경단을 자청하며 이뤄지는 신상털기 등으로 이어지고, 무분별한 피해자를 양성한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불교 교단사 연구자이자 계율 연구자인 사사키 시즈카(佐佐木閑) 하나조노대학 불교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에 번역된 저서 〈인터넷 카르마〉를 통해 자신이 쌓은 인터넷 속 업(業, 카르마)들이 박제되고 편집돼 악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인터넷 시대를 바르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제시한다.

석학이 바라본 인터넷 세계는 '잊혀질 권리'가 사라진 '업의 세계'다. 붓다는 '자신의 행동 모든 것이 기록돼 반드시 그 결과를 받게 된다는 세계가 과연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가'를 생각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성찰해 불교를 탄생시켰다. 불교의 '업'은 우리들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는 일종의 시스템인 것이다.

하지만, "20세기까지 가졌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지르면 모른다'는 느슨한 생각은 '인터넷이 보지 않은 곳이란 어디에도 없다'라는 새로운 세계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실제 사물인터넷 등 고도로 발단된 IT기술들은 우리의 행동과 기호, 성격들을 전부 데이터화해 기록한다. 이것이 선한 행동이든 악한 행동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모든 것들이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 박제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사키 교수는 붓다가 처음 불교를 탄생시킨 시대보다 현재의 인터넷 시대 '업'이 더욱 악질적이고 어둡다고 진단한다. 조각조각 흩어져 아무 관계없이 보존된 인터넷 정보가 어떠한 계기로 드러나 융합되면 이는 문제의 당사자 자신도 예상 못한 정밀한 인간상이 나타난다. 저자는 여기서 나타난 인간성이 진짜 본인 모습을 바르게 나타낸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인터넷 카르마'의 무서운 점에 대해 이 같이 역설한다.

인터넷서 파생된 새 시스템 속
자기 業, 박제·편집돼 돌아와
누구든 피해자 될수 있는 시대

석학제시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계정혜 등 三學 통해 정보 선택
자비심으로 타인 아픔 공감해야

"거기(인터넷)에 떠오른 인간상은 결코 본인 모습을 바르게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정보가 낱낱이 기록되는 것까지는 완전히 기계적 작용입니다만, 그 다음 단계부터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손대거나 변형시키는 행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의 누구인지도 모르는 제3자에 의해 편집된 형태로 세상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책임보다 한층 무거운 결과가 되어 되돌아온다는 점에서 인터넷의 업은 붓다 시대의 업보다 악질적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석학이 제시한 '인터넷 카르마'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자는 계·정·혜(戒·定·慧) 삼학에 입각한 일종의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다양한 형태의 메시지에 접근해 분석 평가하고 의사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능력 향상을 제시한다.

그는 '인터넷 카르마'의 먹이가 될 만한 행동을 삼가는 스스로의 규제를 계율삼아 인터넷 정보에 일일이 휩쓸리지 않게 침착함을 유지하는 '정'을 추구할 것을 주문하며, 이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정보를 거르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발견하는 '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타인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인 자비심 배양도 스스로 인터넷 카르마에 사로잡히지 않을 방법으로 저자는 제시한다. 나아가 인터넷 속 불합리한 언어폭력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인터넷을 넘어 보다 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던진다.

한편, 이 책의 역자인 법장 스님(해인사승가대학 학감)은 사사키 교수의 제자로, 제자 스님이 나서서 스승의 저서를 번역한 점도 눈길을 끈다.

▲저자 사사키 시즈카 교수는?

세계적인 불교 교단사 및 계율 연구자이다. 1956년 일본 후쿠이현(福井縣)에서 태어났다. 과학자를 꿈꾸며 교토대학 공학부 공업화학과를 졸업했으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길이라는 생각에 교토대학 문학부에 들어가 불교학을 전공하게 된다.

교토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박사과정을 마친 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유학을 거쳐 하나조노대학 문학부 강사, 조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하나조노대학 불교학과 교수이다. 한국에 번역된 책으로는 〈출가란 무엇인가?〉 〈붓다와 아인슈타인〉 〈일일시수행〉 〈인도불교의 변천〉 〈과학의 불교-아비달마불교의 과학적 세계관〉 등이 있다.

고통과 성스런 '폐쇄공간' 詩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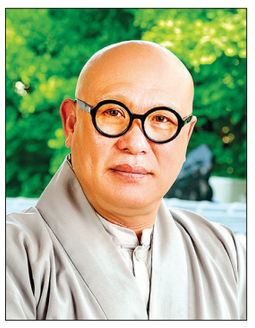
그리운 173
승한 스님 지음
문학연대 펴냄
1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인 승한 스님〈사진〉은 글쟁이다. 그래서 한동안 本紙에 필자로 활동했다. 그러던 어느날 신문 마감날로 기억된다. 원고 담당 기자가 필자인 승한 스님 핸드폰이 꺼져 있고 연락이 안된다고 발을 동동 굴렀다. 결국엔 스님과 연락이 닿지 않아 원고는 불가피하게 다른 원고로 채워졌다. 그리고 얼마간 스님을 원망했다. 어릴 적부터 유전적으로, 심리적·환경적 요인으로 '자살충동'에 시달리는 등 극심한 정신적 아픔과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기전까지는 말이다. 아마 그때도 병원에 입원했을 거란 짐작이 든다.

저자는 청소년기 때부터 앓던 정신적 고통과 내면의 상처가 재발돼 두 차례나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173 폐쇄병동에 입원해 몇 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이번 시집은 그때 겪고 느끼고 체험한 폐쇄병동 생활과 내용을 매우 객관적이고 직접(直接)적인 발성법으로 실감나게 그려낸다. 시집 제목을 '173'이라 붙인 것도 폐쇄병동을 상징한다는 의미다. 이 시집은 우선 독창적이다. 정신병원 폐쇄병동을 소재로 전편(62편)을 연작시로 썼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정신병원 폐쇄병동을 소재로 쓴 소설작품은 많지만, 시집 한 권을 통째로, 그것도 문학적 완성도가 높게 형상화된 시집은 없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에 대해 저자인 승한 스님은 "처음엔 저의 정신건강 문제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삶의 비밀로 꾹꾹 눌러두고 살았지만 출가수행자가 되면서 모든 것을 내리고 비우고 참회하면서 제2의 삶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 제 삶의 치부조차 모두 고백하게 됐다"며 "오히려 그 아픔과 비밀을 시로 승화시켜 저처럼 정신적 아픔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승한 스님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직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 사회가 그들을 좀 더 따뜻하게 안아주고 잘 보듬길 발원하는 마음에서 5년 전부터 이 시편들을 쓰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들은 '173 폐쇄병동'으로 귀결되는 연작시로 구성됐지만, 각 시마다 부제가 붙어있어 변별점을 지닌다. 하지만 저자가 입원한 폐쇄병동서 이루어진 경험과 사유가 시집 내용의 전부라서 이 시집은 폐쇄병동서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는 정신질환을 잃고 있는 환우들을 위한 헌사라 할만하다. 저자인 승한 스님은 책 서두에서 〈나의 173 동료들에게 이 시집을 바친다〉란 부제의 시로 애절한 그 심정을 생생히 전했다. "그들과 함께 나는 진화하고 생존했다. 앞으로도 나는 그들과 함께 진화하고, 생존할 것이다. 모든 삶은 진화하고 생존하다 명멸한다"라고.

저자, 정신 폐쇄병동서 입원치료
그 아픔과 비밀을 시심으로 승화
삶의 목적과 원동력 찾는 기회로

전 62편 연작시…각 시마다 부제
애절한 시어로 현장 생생히 전해
구도의 공간으로 변화…시어의힘

황치복 문학평론가는 책 말미에 붙인 해설을 통해 "고통과 상처로 얼룩진 공간, 감시와 처벌의 감옥과 같은 공간이 구도(求道)의 공간과 성스러운 공간으로 변화되는 극적인 장면을 보는 것은 감동적"이라며 "시집을 읽는 내내 독자들은 가슴 아린 통증을 느끼면서도 극단의 폐쇄적 공간에서도, 그리고 극도로 고독한 상황에서도 깨달음을 향한 인간의 정신이 형형하게 살아 있음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태준 시인도 승한 스님의 시집 원고를 읽은 뒤 "시집 속에 등장하는 '173 폐쇄병동'은 우리의 고통스런 이 사바세계이며, 실감 있는 삶의 현장 그 자체이다. 스님은 이 연작시들을 통해 삶과 죽음, 폐색과 개방, 속됨과 신성, 실재와 환(幻), 그리고 자유에 대해 끝없이 질문하고 있다"며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무상과 무아를 깨닫게 하며, 이 시편들은 한 편 한 편이 아프고 격렬함과 동시에 고성(高聲)으로 몰아쳐 가며 읽는 불경(佛經)과도 같다. 그러나 시심의 결이 곱고 여리어 우리는 이 시편들 속에서 '오른쪽 뺨에 고이는 볼우물'과 같은 애틋함과 순수, 그리고 사랑을 함께 발견한다"고 평했다.

승한 스님의 이번 시집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출가수행자'로서 감추고 싶은 자신의 '비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커밍 아웃(coming-out)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승한 스님은 "사람들은 누구나 정신적인 문제를 조금씩은 갖고 있다. 오히려 그런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을 감추고 싶은 병(病)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그 본질을 직시함으로서 삶의 목적과 자유 도덕 행복 인간의 존엄성 등을 찾아가는 원동력으로 삼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된다면 더욱더 인간적이고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문(門)'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속내를 내비쳤다.

▲저자 승한 스님은?

중앙대 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서 동양철학과 불교철학을 공부하고 있다. 198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시, 200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시가 당선됐다. 시집으로 〈수렵도〉 〈퍽 환한 하늘〉 등과 산문집으로 〈나를 치유하는 산사기행〉 〈스님의 자녀수업〉 〈네 마음을 들어줘〉 등이 있다. 현재는 한국불교태고종 〈한국불교신문사〉 주필로 재직중이다.

팔만대장경을 260자로 압축한 경전!

반야심경 제대로 공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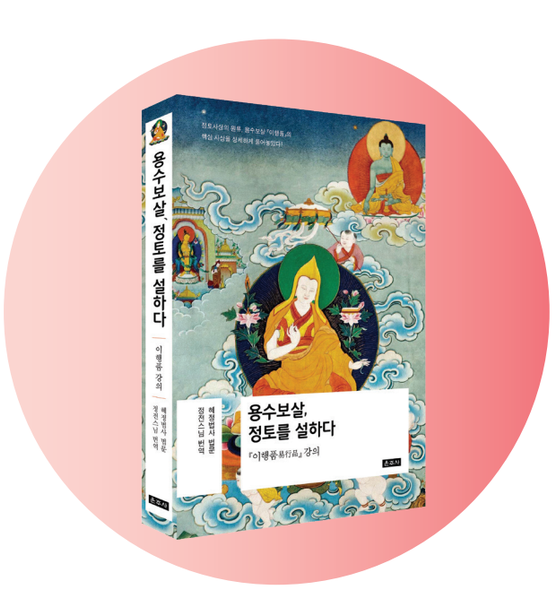


불교의 공空사상을 담은 방대한 600권 『반야경』의 정수를
간략하게 260자로 압축한 『반야심경』의 핵심 사상을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조명하였다!

이광준 지음/184쪽/값 12,000원

정토에 관한 최초의 논서!

용수보살, 정토를 설하다



– 『이행품易行品』 강의 –

정토사상의 핵심을 다 망라하고 있는 용수보살의 『이행품』에 대해,
그 구성과 내용, 의미, 사상 등을 상세히 설하였다.

혜정법사 법문/정전스님 번역/492쪽/값 23,000원

재가 및 출가 수행의 생생한 체험기!

너울치는 삶에서 달을 건져라



재가 수행자에서 늦깎이 수행자로! 수행 여정에서 만난
각종 장애들과 깨달음, 선지식들과의 인연과 가르침이
진솔하게 그려져 있다.

법운 지음/268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